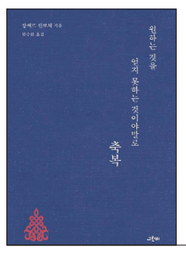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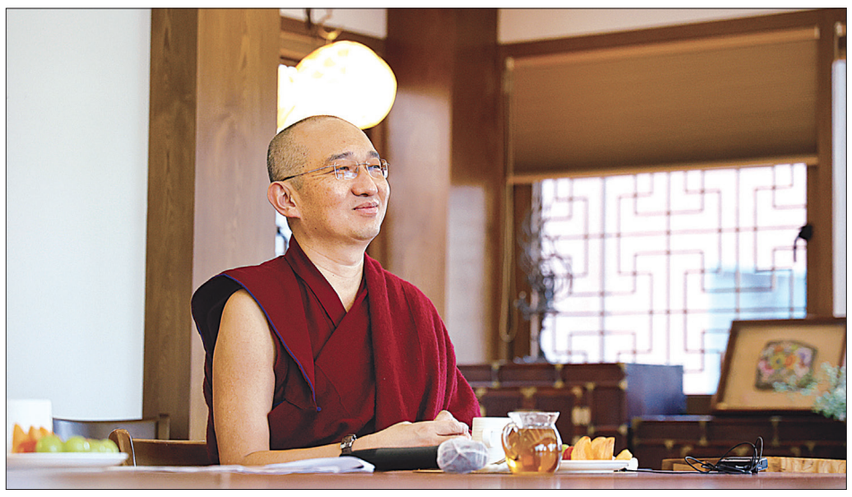
‘갖고 싶다’가 ‘필요하다’를 넘어서면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캉쎄르 린포체 지음
한수희 옮김
그린비
1만5000원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수행자
최근 한국 처음으로 방문해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 일으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캉쎄르 린포체는 한국불자들에겐 생소한 수행자다. 그동안 수많은 린포체들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캉쎄르 린포체는 그동안 얼굴을 비춘 적이 없어서다. 티베트 최대 종파 겔룩파 소속인 캉쎄르 린포체는 2023년 7월 15일 달라이라마에게 인도 다람살라 균뙤 승원의 부승원장으로 임명됐다. 본명은 텐진 출팀 팔덴이며 현재 제8대 캉쎄르 린포체다. 제7대 캉쎄르 린포체는 제14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찾아낸 세 명의 수행자 중 한 명이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경험했다고 밝힌 캉쎄르 린포체. 처음 느껴보는 눈 밟는 소리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캉쎄르 린포체는 방한에 맞춰 한국불자들을 위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을 펴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표현이다.

린포체는 책에서 탐진치 삼독 중 첫 번째인 ‘탐’을 주제로 법문을 정리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願)’은 탐욕이 아닌 바람이나 소원 또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린포체는 다양한 이야기와 비유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한다. 특히 탐욕과 욕망이 어떻게 괴로움을 동반하는지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힘을 썼다.

그러면서도 린포체는 욕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애플의 아이폰을 주제로 욕망을 설명한다.

“아이폰11과 아이폰12는 뭐가 다르지요? 아주 조금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관련 업체들은 이 둘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말하고 ‘이 제품이 가장 최신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친 듯 최신 폰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전에 누군가가 아이폰을 두고 이런 농담을 하더군요. 오이에 ‘iPhone’이라고 써놓으면 즉시 그 오이의 가격이 치솟으며 너도나도 사려 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서랍에 스마트폰을 몇 대씩 넣어 둡니다. 이처럼 ‘갖고 싶다’가 ‘필요하다’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욕망에 코가 꿰여 끌려가곤 합니다.”

린포체는 이런 욕망을 처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우선 눈을 감고 자신의 소원(욕망)이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걸 한 번 적어보자. 만약 적어놓은 소원이 6개라면 그중 3개를 지운다. 소원이 10개라면 절반인 5개를 지운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찬찬히 살펴보자. 그중에서 욕심 때문에 갖고 싶은 게 몇 개인지, 정말로 필요한 건 또 몇 개인지 세어보자. 그렇게 다시 절반만 남기고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소원은 지워버린다. 그러다보면 남아있는 소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린포체는 말한다. “조금 많아도 괜찮고 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즐겁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행복한 상태라면 행복을 찾고 싶어하지 않을 거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건 현재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저자 **캉쎄르 린포체**는?

1975년 태어나 1980년 제8대 캉쎄르 린포체로 인정받았다. 1992년 달라이라마가 세운 불교철학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1998년 인도 남부 쎄라 제 승원 교수사 과정을 수료해 불교학 석사를 취득했다. 2005년 다람살라 균뙤 탄트릭 승원에서 불교철학 박사를 취득할 때 최고 학부 중 수석이었다. 현재는 직접 설립한 네팔 카트만두 탕까르 데첸 최링 승원과 세계 각지의 디빵까라 재단을 관장하고 있다. 인도, 네팔, 베트남, 대만, 미국, 한국 등 다양한 나라의 딥까르 불교센터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茶禪一如 공간 ‘초암다실’ 조명하다



초암다실의 미학
후루타 쇼킨 지음
이현옥 옮김
민족사
2만2000원

〈초암다실의 미학〉은 차(茶), 다도(茶道)를 다루고 있지 않다. 차의 음다법·제다법·차 산지·차 도구 등이 아닌 차(茶)와 선(禪)이 이어지고 있음을 미학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서다.

〈초암다실의 미학〉은 차를 마시는 다도와 득도를 위한 선의 수행이 같은 경지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관점에서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체험토록 한다.

‘초암(草庵)’이라는 다도를 위해 만든 작고 소박한 다실 공간을 미학적으로 접근해 공간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선의 세계이며 불법 수행의 도량임을 보여주고 있다.

초암다실(草庵茶室)은 작고 소박한 다실로 ‘와비다실(わび茶室, 侘茶室)’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서 다실이라고 할 때는 흔히 이 초암다실을 가리킬 때가 많다.

일본의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센노리큐(千利休)는 집은 비가 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고 하여, ‘초암차(草庵茶)’의 정신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와비미(わび美, 侘美)의 구성에 한층 더 신경을 쏟아부었다. 다실의 천장이나 벽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실 내 특별한 공간의 너비, 깊이의 치수까지 까다롭게 따져 와비의 종합적인 미를 심오하게 추구하며 초암다실의 형식을 완성했다.

초암다실은 다다미 4장 반으로(약 2평) 만들어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 4장 반을 우리나라의 고시원 정도의 작고 더 이상 싸게 구할 수 없는 방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작고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좁은 게 좁은 것이 아니고, 넓은 게 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는 단순히 마시던 음료였다. 음료에서 의식(儀式)이 되고, 거기에 정신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차를 대하는 본질이 변화했다.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차 문화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 초암다실이다. 다만 이 책에서는 선의 세계를 형이상학적 접근이 아닌, 초암다실이라는 실재하는 공간의 구조적 접근을 통해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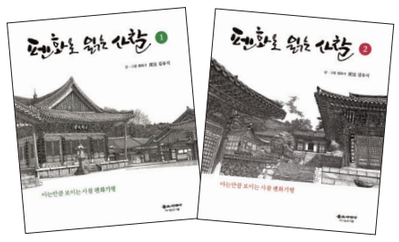
책에서 조명한 초암다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선의 미학이 확인된다. 선에서의 오묘한 깨달음인 무(無)의 관문을 상징하는 낮은 출입구인 ‘니지리구치(にじり口)’부터 속계를 떠나 고요한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다실 정원인 ‘로지(露地)’, 일심득도(一心得道)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나타내는 ‘징검돌’을 거친다.

또한 인간의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상징하는 감각기관인 ‘다실의 창’과 불상을 걸어 예배했던 불당이 그 원형인 ‘도코노마(床の間)’ 등도 선적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조다.

이처럼 초암다실은 선(禪)을 지향하는데, 선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無)’를 자각하기 위함이다. 만사를 내려놓고 집착을 끊을 때, 마음의 아만(我慢)과 아집(我執)을 버리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다다를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신중일 기자

아는 만큼 보이는 사찰 펜화 기행



펜화로 읽는 사찰 1, 2
글 · 그림 김유식 / 불교시대사 / 각 2만원

전국 유명한 관광지라 하면 사찰을 빼놓을 수가 없다. 〈펜화로 읽는 사찰〉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어주는 사찰 문화에서 내려오는 의식과 전해오는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 김유식 펜화가는 직접 스님들과의 대화를 글로 옮기고 눈에 들어오는 사찰 풍광을 그림으로 그렸다. 1권에는 이름 난 말사 23편에 삼보(불법승)사찰을 더해 26편이 소개됐다. 2권은 23교구 본사로는 아쉬워 말사와 암자 4편을 보태 27편을 소개했다. 책에 실린 작품 수만도 1권에 70점, 2권에 65점 등 총 135점에 이른다.

사찰문화는 우리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펜화로 읽는 사찰〉의 책장 한 장 한 장을 넘기다보면 각 사찰에 숨겨진 옛 이야기에 깃들어 있는 재미있는 전설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등사 처마 네 귀퉁이에 있는 여인을 왜 조각해 놓았는지’ ‘부석사에 부석은 왜 생겼는지’ 등 각각 절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다.

누군가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행은 알고 다니면 아는 것이 보이고 느끼는 재미가 있어야 더욱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서 보는 여행은 질적으로 다르다. 모르고 보면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아 후일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기에 김유식 펜화가는 소개하는 사찰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였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 보는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사찰마다 간직하고 있는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한껏 느끼게 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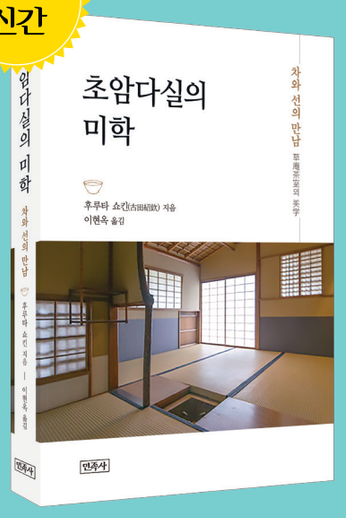
▲저자 **김유식 펜화가**는?

인하대 재학시절 유화 작품으로 두 번의 개인전을 하였으나 88년 졸업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하면서 직장인 화가로 일과 작품 활동을 겸업했다. 세 번째 개인전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에 나서 개인전 8회 및 단체전 50여 회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펜화가협회, 색연필화협회, 한얼우리그림협회, 화우회, 국민예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차(茶)에 먹히지 않는 안내서, 차(茶)와 선(禪)은 하나다!

화제의 신간

초암다실의 미학
-차(茶)와 선(禪)의 만남-



“세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도(道)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차에 먹힌다.”
여기서 도(道)는 불교의 선(禪)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차(茶)에 먹히지 않도록 차와 도의 접점을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통해 이미지로 보고 체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 후루타 쇼킨, 역자 이현옥 | 256쪽 | 22,000원

저자 후루타 쇼킨(古田紹欽, 1911.5.22.~2001.1.31.) 일본의 불교학자이며 문학박사.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 졸업, 홋카이도대학, 일본대학, 하나조노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 일본의 불교학자로 불교와 선을 사상적 측면에서 폭넓게연구. 대학시절에 인도철학이나 불교 관계에 대해 너무 난해한 강의를 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현대인도 알기 쉬운 언어로 불교를 해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역자 이현옥(李鉉沃)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졸업, 석사. 일본 토호쿠대학 대학원 연구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어교육학과 석사.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문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차문화콘텐츠학과 석사.

나의 일상이 곧 수행이다!

선불교
생활 · 철학 · 문화로 본 선불교의 모든 것



禪

선불교가 활발했던 당송唐宋 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
그리고 선 문화 등을 통해
선불교와 선수행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글 윤창화 | 562쪽 | 23,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